

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culture | art

한국의 작업실 정책에 대해 앞서 많은 분들이 '작업실 정책의 필요성'과 '한국 작업실 정책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필자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방 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문제점과 장점 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지방에 있는 공립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실 정책 대안이 필요한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현황

1) 과거 (1995~2003)

광주비엔날레가 1995년 처음 생겼을 때 서울에 있는 미술인들은 아마 선수를 빼앗긴 기분이었을 것이다. 지방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광주비엔날레라는 행사는 미술인들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든 것인데,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한국에서 시행되고 지방도 세계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이 광주비엔날레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당시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을 관할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역작가를 지원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 기존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한국에서 최초의 창작스튜디오를 1995년 탄생시켰다.¹⁾

하지만 항상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늦다는 사회학적 진리가 말해주듯이,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도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8년여 동안 20여 명의 입주작가를 배출하였지만,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작업장의 단순 임대 이외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작가와 미술관이 만나는 것은 2년에 한 번 임대계약을 할 때뿐이었고, 그 결과 미술관은 입주작가 및 지역미술인들로부터 실망만 야기할 뿐이었다. 사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은 열악한 예산과 시설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예산과 운영프로그램 없이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한 결과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재 (2004~)

단순임대만 하고 운영프로그램이 없던 광주시립미술관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팔각정창작스튜디오 이외에 양산동창작스튜디오(이하 양창)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현재는 문화정책

실)는 노후하여 사용하지 못하던 시 소유의 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로 만들었다. 2004년 1월 첫 입주작가 12명이 입주하였고, 광주비엔날레에 4호를 임대하여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 및 큐레이터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여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삼고자 하였다. 양창은 1층에 프리젠테이션 전시실 및 사무실을 마련하고 2층부터 5층까지를 작가들의 작업실로 제공하였다. 각 작업실은 14평형으로 작가들의 숙소 및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다. 즉, 14평형의 소형아파트가 작은 작가들의 경우 이곳을 거주지로 하고 외부에 본인이 작업실을 구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작가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곳을 작업실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규모의 특성상 대형작품을 하는 작가들의 경우, 별도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이곳을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작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북유럽 식의 작가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작업실이

1) 주요 창작스튜디오 설립년도 비교

-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1995년
- 짬지 스튜디오 : 1998년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2000년
-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2002년

너무 좁다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므로, 양창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양창의 3호 정도가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9호 정도는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숙소이든 작업실이든 입주작가 간의 교류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편이다.

2004년 6월에 양창 입주작가 손봉채 등 12명의 입주작가를 실시함으로써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재가동을 대내외에 신고하였고, 8월에는 인터넷웹진 『미술과 담론』에 <한국의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보고서>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어 9월에 열린 광주비엔날레를 맞이하여 전세계 미술인들이 모이는 비엔날레 프레오픈 기간에는 김찬동 당시 문예진흥원 미술전문위원, 이건수 월간미술 편집장, 조관용 전 영은미술관 학예실장, 서진석 갤러리 루프 대표, 조주현 국립창작스튜디오 매니저 등 한국의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전문적 관심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입주작가들과 함께 '한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평론·큐레이터·입주작가·미술편집인이 함께 모여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런 세미나를 겸한 교육은 한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사건으로서, 비록 비엔날레라는 블랙홀에 빠져 세상에 널리 알려지진 못했지만, 입주작가들에 대한 재교육 및 한국에서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붐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함으로써 작가들의 작업실을 보여주고 작가들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컬럼버스의 달걀처럼 광주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국내 미술기관도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선도적 역할을 지방에서 한 것이다. 그 결과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최고의 장점은 미술관이 입주작가들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식구'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입주작가와 미술관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이 한 식구처럼 서로를 대하고 같은 지향점을 지니고 스튜디오 생활을 하고 있다.

오의 입주작가 손봉채, 신호운 2인은 한국 교육방송에서 방영하는 미술다큐멘터리 「떠오르는 젊은 그들」 편에서 한국의 유명한 청년작가 20명 중에 당당히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장단점과 발전 가능성

1) 장점

최고의 장점은 미술관이 입주작가들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식구'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입주작가와 미술관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이 한 식구처럼 서로를 대하고 같은 지향점을 지니고 스튜디오 생활을 하고 있다.²⁾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프로그램³⁾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작가에 대한 매니지먼트(management) 지원책"에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작가홍보 지원, 개인전 지원, 국제비엔날레 참여 지원, 각종 전시정보 제공, 각종 전시기자재 무료제공, 미술관 교육행사 강사로 우선 채용, 미술관 작품 구입시 구입추천 등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 갤러리 내부

이 작가에 대한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니지먼트 개념은 공립미술관 중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불과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미미하고 아직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국내 미술관이 이러한 것을 시도조차 해보았는가? 이것이 한국 창작스튜디오 계의 현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광주시립미술관은 전국 주요 공립미술관 중 최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이다.

이런 형편에도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은 1)작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것 2)현재보다 미래를 본다는 것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자명하다. 지방 미술관이 그 지방의 작가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미술관(local museum)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금은 시작 단계일지라도 앞으로 더욱 발전된 창작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추하고 미

약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정책 입안자들이나 예산권자를 움직여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그 밑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난한 젊은 작가에게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그래도 작업할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은 가난하고 미래가 암울한 청년작가일 뿐이지만,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지역 미술계의 모습을 보니,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작업할 용기가 난다는 말이었다. 이것이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

튜디오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2) 지방 공립창작스튜디오의 문제점

그러나 위 장점들의 빛을 바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지방에 위치한다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에서 큰 핸디캡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예술적인 생각이다. 운영만 잘 된다면 오히려 지방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장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역시 ‘예산과 인력’이라 하겠다. 구구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느낀 지방 공립창작스튜디오의 주요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다.

1. 예산과 전문인력이 없다.
2. 시설이 노후하다.
3. 정책입안자들 또는 예산권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4. 유망한 청년 작가층이 없다.
5. 능력 있는 큐레이터가 부족하다.

상기 문제점들은 오직 창작스튜디오에만 국한된 것이다. 사실은 지역미술계 전체의 문제가 더 우선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부분일 뿐이고, 광주라는 지역미술계는 전체이다. 이 전체가 작동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이 사실 먼저 거론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논의의 문제니까, 창작스튜디오에 국한해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제시

편집자는 필자에게 작업실 지원정책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였는데, 필자는 “한국에서 작업실 지원정책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한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문예진흥원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니까 작업실 지원정책의 주체를 문화부로 보면, 최종한 말씀이지만 이제 시작이 아닌가? 과거 문예진흥원에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촌 사업을 하다가 철수한 것,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근 2년 내에 창동과 고양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하고, 프로그램매니저 2명을 공채한 것, 올

- 2) 필자는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현재 한국에서 최고의 창작스튜디오라고 생각한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에 대한 가장 많은 노하우’와 ‘작가에 대한 애정’과 ‘가장 풍부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라고 판단하고 있다.
- 3) 2004년 8월에 발표한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화된 운영프로그램이다.
- 4) 전국 주요 공립미술관 2005년도 전시 및 작품구입예산 (2005년 3월 현재)

구분	총계	전시예산	작품구입예산
서울시립미술관	43억원	13억원	30억원
경남도립미술관	11억원	6억원	5억원
부산시립미술관	10억원	3억원	7억원
전북도립미술관	10억원	5억원	5억원
대전시립미술관	8억원	3억원	5억원
광주시립미술관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원

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처음으로 창작스튜디오 사업예산을 지원한 것. 이 정도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대안이란 어떤 정책이 잘못됐을 때,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이지, 이제 막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을 가지고 대안이랄 수는 없겠다.

다시 말해, 한국의 창작스튜디오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굳이 편집자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정책자들을 향하여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작업실 지원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프로그램

- 가. 오픈스튜디오 전시 및 세미나 개최
 - 1) 횟수 : 연1회
 - 2) 장소 : 창작스튜디오 및 프리젠테이션 갤러리
 - 3) 참가자 : 입주작가 전원
- 나. 전시회 개최
 - 1) 횟수 : 입주기간 중 1회
 - 2) 장소 :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또는 분관
 - 3) 참가자 : 입주작가 전원
- 다. 출판물 발간 및 홍보
 - 1) 전시회 등의 개최시 도록 등 출판물을 발간하여
 - 2)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갤러리, 언론사로 발송
 - 3) 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를 통한 작가 홍보
- 라. 개인전 개최 지원
 - 1) 원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현 프리젠테이션 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추진
타지역에서 개인전 개최 희망시에는 미술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간접적인 전시 지원
- 마. 국내외 창작스튜디오 작가 교류 추진
 - 1) 입주작가 중 1~2인을 선발하여 작가 교류
 - 2) 1차적으로 국내 스튜디오와 교류를 추진하고 이후 외국으로 교류 추진
 - 3)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국제적 작가 교류 추진
- 바. 입주작가 매니지먼트 지원
 - 1) 타 지역 전시 및 미술관/갤러리/문예진흥원 정보 제공
 - 2) 공모전 및 단체전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
 - 3) 광주비엔날레 참가 지원
- 사. 출신작가에 대한 지속적 지원
 - 1) 광주시립미술관 출신작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술관 차원에서의 지속적 관심과 배려
 - 2) 향후 강의, 전시, 작품구입 등 미술관 개최 사업에 우선적 참여 지원



왼쪽 ·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내부, 오른쪽 ·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전경

그러므로, 필자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작업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요구해보고자 한다.

- 1)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정책 및 예산 수립 · 집행권을 국립현대미술관에 돌려야 한다. 미술인들의 현실에 대해 문광부보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더욱 잘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연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국 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립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지원은 문예진흥원이 담당)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과 민간에서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따라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는 이제라도 한국 창작스튜디오 계의 기둥이 되어줘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에 지방박물관을 두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되지 못한다면, 현재 있는 공립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라도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국립을 포함한 전국 국공립미술관 관장의 급을 한 단

계 이상 올려야 한다. 지금처럼 낮은 계급으로는 중앙 정부든 지자체단체인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 및 정책에 관한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4) 현재 정부기관은 일체의 후원 및 협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각종 문화재단에서 미술관에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전근대적인 법은 빨리 개정하여야 한다.
- 5) 창작스튜디오를 위한 전문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모르고 있다. 국립조차 전문인력 2명이 전부이다. 행정직 공무원은 매년 수천 명씩 뽑으면서 창작스튜디오 전문인력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지방 공립창작스튜디오의 현실은 비참할 정도이다. 그나마 광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국립에서조차 올해 처음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 사실 창작스튜디오만도 못하다는 비야냥거림을 받고 있는 슬픈 현실에서 탈피하여 시대에 걸맞는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